

**국민의힘이
나아갈방향**

목 차

1

대한민국의 위기

2

**문재인 정부 3년,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나?**

3

**2040세대, 대통령도 싫지만,
자유한국당이 더 싫었던 이유?**

4

국민을 위한 마음

Chapter.1

대한민국의 위기

1960년대 미국 vs 2020년 대한민국

	1960년 미국의 문제	2020년 한국의 고민
노동의 자유	노조권력자들에게 집중된 권한은 대기업의 독점과 다를 바 없음	귀족 노조 장벽에 무너진 노동개혁
	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해야 함, 정치활동 반대	정치가 노조 파업의 명분으로 전락
세금과 지출	성공을 징계하는 누진제, 자연권에 배치	부자증세가 곧 정의라는 프레임
복지 국가주의	매표에 눈이 먼 공짜 복지	대책 없는 무차별 현금살포
교육	개인의 창의성·재능을 무시한 평등 교육	개천에서 용이 못 나는 평등 교육
소련의 위협	자유와 정의를 담보 못한 굴복의 평화	(북한) 굴욕적대북정책 반대를 전쟁광 취급

대한민국의 지향점

01

올바른 정책지향점 //

자유
시장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강력한
국방

02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할 것 //

통제

간섭

무능



출처:뉴스핌

"주택보유 현황 내년 인사부터 평가 등에 반영"

"국가가 국민을 '초딩' 취급해 시시콜콜 간섭하면 불행한 사회"[청론직설]

노영민 "다주택자 청참모 1채 남기고 처분하라"

출처:연합뉴스TV, 서울경제, JTBC



출처:TV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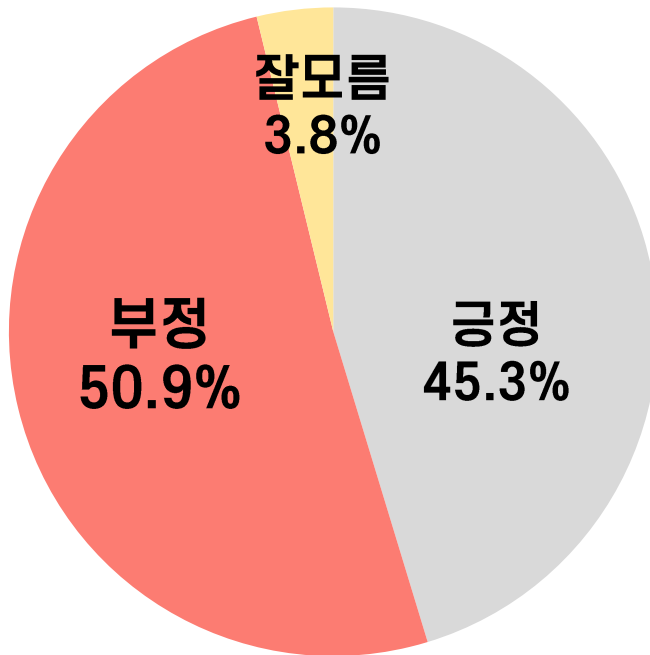
Chapter.2

문재인 정부 3년,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나

知彼知己百戰不殆

국민의 절반, 대통령 부정평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얼미터 2020년 1월 3주차 조사

40대를 제외,
모든연령층에서 부정평가 우위

2040세대 중,
19~29세의 부정평가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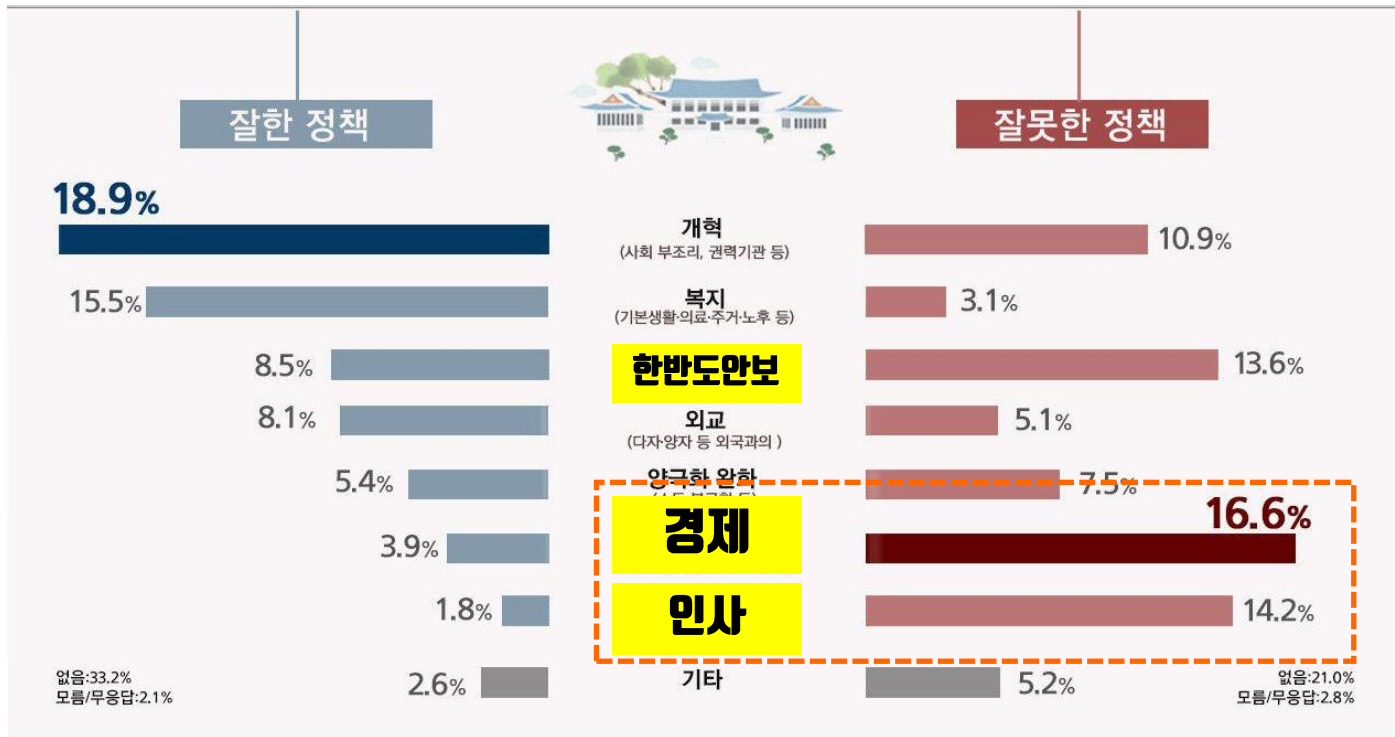
	긍정	부정
19~29세	38.6	53.0
30대	48.4	49.1
40대	55.3	42.5
50대	44.7	53.3
60대이상	41.1	55.1

경제실패, 인사실패

?

부정평가 원인,

2%로 폭락한 **경제** 성장률과 불공정 **인사**



민주당 집권 = 세금 먹는 하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단위:%)

KBS, 2019. 1. 25.



자료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강준희

KBS

국민등골브레이커, 문재인정권

문재인 복지 정책 = 직장인 세금 폭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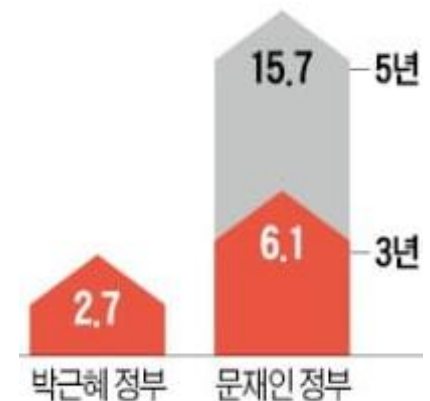
조선일보, 18.09.06

4대 보험료 요율 인상 전망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2018년	2019년	2030년
건강보험	6.24%	6.46%	9.45%
국민연금	9%	11%	11%
고용보험	1.3%	1.6%	4.43%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7.38%)	0.46%	0.48%	0.70%
요율 합계	17.0% (근로자 부담 8.5%)	19.54% (근로자 부담 9.8%)	25.58% (근로자 부담 12.8%)
증가율		14.9%	올해 대비 50.5%
500만원 월급 직장인 부담	42만5000원 (연 510만원)	48만8500원 (연 586만원)	63만9500원 (연 767만원)

1년 만에 직장인부담 76만원 급등

정부별 4대 보험료 인상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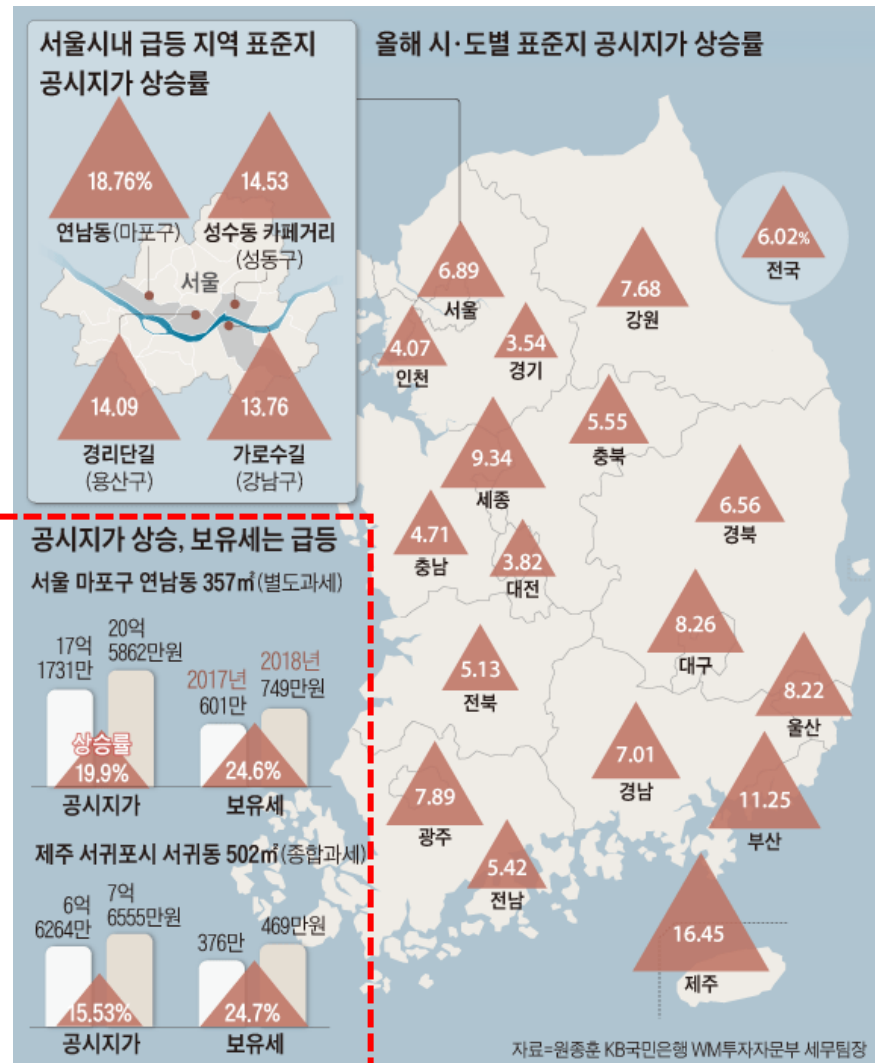
박근혜정부 대비
5배 이상 인상 추정



한국경제, 19.09.22

집값 올려 세금 착취, 문재인 정권

공시지가
올리고,
보유세는
더 올리는
문재인式
세금착취책



국민 눈치안보는, 막가파식 인사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기준 미달 24명의 장관급 이상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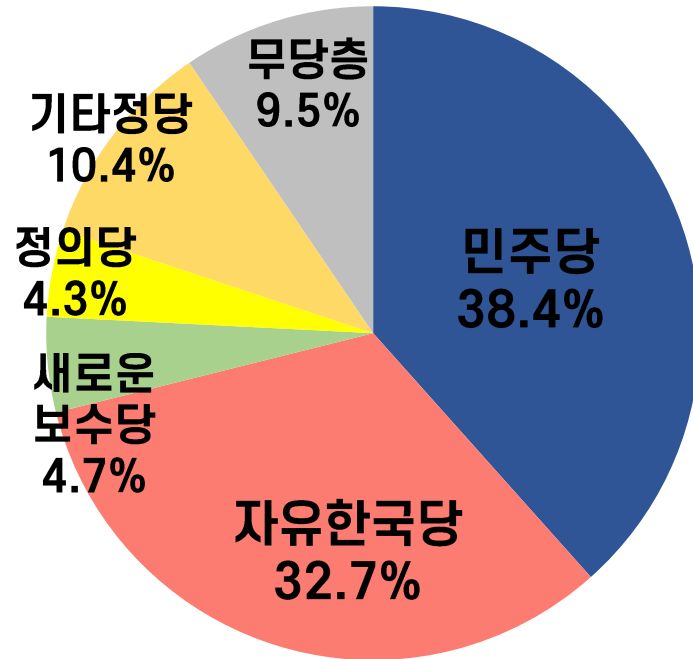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양승동	KBS 사장	이은애	헌법재판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법도
원칙도 없는
검찰
학살까지..**

Chapter.3

**2040세대,
문재인이 싫지만,
자유한국당이 더 싫었던 이유**

왜 자유한국당은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했나?



리얼미터 2020년 1월 3주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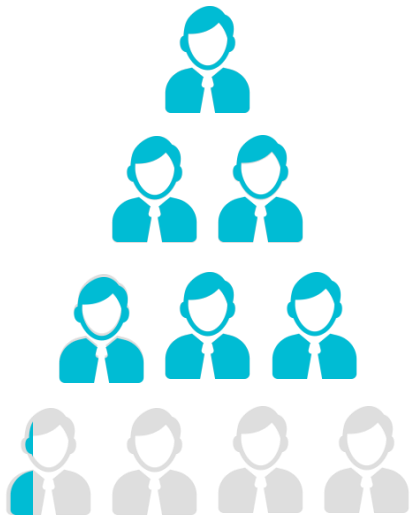
2040세대 당 지지율, 30% 미만

대통령 부정평가층(50.9%)이
한국당으로 흡수되지 않는 현실

	한국당	민주당
19~29세	28.4	33.8
30대	29.1	42.5
40대	24.7	48.3
50대	33.8	39.3
60대이상	42.6	30.8

자유한국당, 비호감도 62%

“10명 중 6명은, 그냥 한국당이 싫다”



한국갤럽, 2019년 10월 2주 조사

1 자유한국당 비호감도, 4개 정당 중 최고

국민 10명 중 6명,
‘자유한국당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선택’
민주당 47%, 정의당 51%, 바른미래당 56%

2 세대별 비호감도, 30대 79%로 최고

40대 74%, 19~29세 70% 順

3 계층별 비호감도, 화이트칼라층 78%

블루칼라 68%, 자영업자 59% 順

한국당,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모르는 정당

월간조선 2019년 9월호, 2030세대 40명 그룹 인터뷰

"뭔가 터지면, '또 자유한국당이겠지' 하는 생각"
"둘 다 싫지만, 젠틀한 '척'이라도 하는 민주당이 더 낫다"

자유한국당

악랄 무능 적폐
꼰대 낡음 호통

VS

더불어민주당

정의 세련 공정
바보 선(善)
아마추어

젊은세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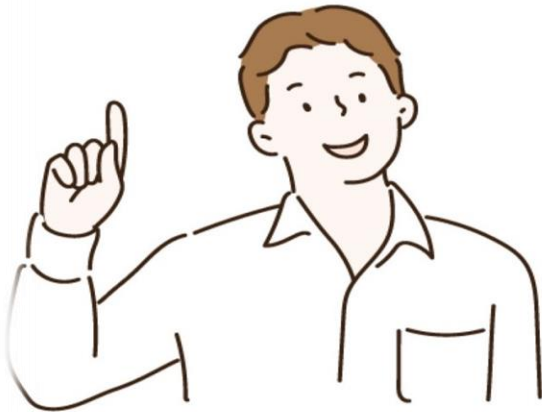
90년생이 온다 中

1990년대들의 세 가지 특징

감성

간단 하거나

재미 있거나



줄임말, 세줄요약,
짤방, 이모티콘



재미를 통한
자아실현이 기본

공정

정직 하거나



학종에 분노
신뢰의 시스템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2040세대가 바라는 그것!

"감성적 공감과 공정한 사회"



국민을 위한 마음

Chapter.4

국민을 위한

3대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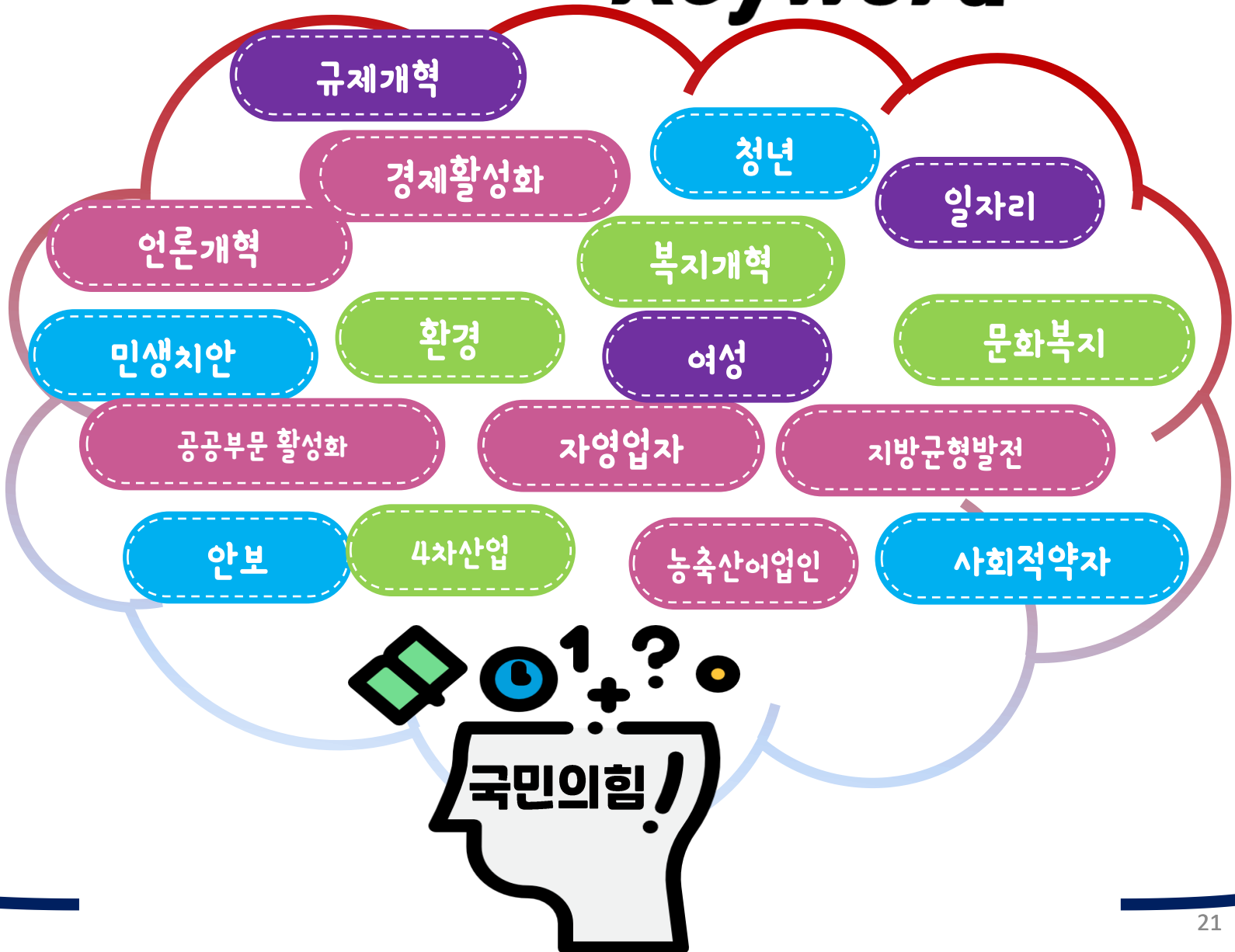
민간기업경제활력
규제혁파
부동산경제활성화
중산층회복

불공정정책원위치
내편만공정out

민심을파고드는
마이크로타겟팅

국민을 위한

Keyword



국민의힘

강령 1 -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강령 2 - 우리의 믿음

1.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2.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보다 행복할 수 있다.
3.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4.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5.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서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6.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7.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8.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9. 정치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분립되고 견제되어야 한다.
10.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강령 3 - 기본정책

< 10대 약속 >

1.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2.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3.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4.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6.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7.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8.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9.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10.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